

[종합·국제]

개성공단 非상주인력 철수

미승인자 501명 오늘까지 모두 귀환

현대아산, 금강산 잔류인력 100명 유지

북한의 '12·1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상주대상에서 제외된 공단 관계자들이 2일 오후 국내로 대거 철수했다.

김호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현재 개성지역에 우리 국민 1천39명이 체류중"이라고 밝히고 "이 중 501명이 미승인자(비 상주대상)로, 가급적 오늘 오후 3시 문무부는 개성공단 관리 위원장의 인솔 하에 1차로 내려왔고 부득이하게 하루 더 체류해야 하는 이들은 3일 오후 귀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당초 675명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이날 방북할 예정이었지만 이 중 321명은 상시 체류 대상자가 아니어서 이들을 제외한 350여명만 출정한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북한은 지난 달 30일 개성공단의 남측 상주인력을 88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상주 대상자에서 제외된 이들은 72시간 안에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 남측 상주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줄어들게 된 금강산 관광지구의 경우 2일 82명, 4일 28명이 각각 철수할 예정이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현대아산은 금강산 지구 내 직원을 4일까지 100명만 남기고 철수할 계획이다.

이날 현대에 따르면 현대아산은 당초 북측이 100명 미만으로 줄이고 요구해 99명만 잔류시킬 방침이었으나, 북측과 협의 끝에 기준 200명에서 절반 줄어든 1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금강산 체류 인원은 내국인 51명, 조선족 49명이며 내국인 가운데 현대아산 필수 인력은 22명이다.

현대아산은 이날 금강산 1차 철수를 단행, 오후 3시에 78명이 출경해 총 130명만 남았다. 이날 출경한 78명 가운데 내국인은 32명, 조선족은 46명이다.

아울러 현대아산은 4일 30명을 추가로 귀환시켜 금강산 체류 인원을 100명으로 맞출 방침이다.

현대아산은 이번에 주로 업장 관리 분야의 인력을 금강산에 철수시키며 호텔 등 시설 관리 인력은 남겨둘 예정이다.

아울러 개성 체류 인원 또한 40명 만 남겨둔다는 원칙 아래 어떤 분야의 인력을 빼낼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연합뉴스

"경제위기 불러
미안합니다"

부시 재임 8년 소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훔친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 '미안하다(sorry)'며 유감을 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1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물론, 그 일(경제위기)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해 미안하다"며 경제가 추락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재직하던 시기에 대한 '역사가 기록될 때가 되면 사람들은 월스트리트(미국 금융업계)에 대한 많은 결정들이 (재임 기간 이전) 10여 년간에 걸쳐 이뤄진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연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으며 미국인들은 우리가 이 시스템을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 많은 개인이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때 "나를 두렵게 한 것은 대공황보다 더 암청난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였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또 재임 중 가장 후회스러운 일로 사당 후세인 전 대통령 치하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획득 실패를 지목했다.

현재 관계에 따라 손자와 옹사와 총리는 물론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며 해체 관계를 받은 정당 소속이 아닌 각료가 총리대행을 맡아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과도정부를 이끌게 된다. 특히 PPP의 경우 손자와 총리를 비롯한 당간부 37명은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현재는 이날 연정 중심당인 국민의 힘(PPB)을 비롯해 첫당이, 마치마티파티아 등 3당의 선거법 위반 인정되면서 이 정당들에 모두 해체 명령을 내렸다. 또 손자 당간부들에 대해 선 향후 5년간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이날 관계는 차 촌라운 현재 소장을 비롯해 9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해 내려졌으며, 국영 TV로 생중계 됐다.

차 촌라운 현재 소장은 "재판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서 "판결이 민족스럽든 불만족스럽든 이를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관계에 따라 손자와 옹사와 총리는 물론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며 해체 관계를 받은 정당 소속이 아닌 각료가 총리대행을 맡아 차기 정부가



2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현법재판소가 집권당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정당 해체와 함께 당간부들의 정치활동 금지 명령을 내리자 수천명 공항에서 농성 중인 시위대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말리아 해적

호화유람선 공격

뉴질랜드는 향해 아라비아해를 항해하고 있던 국제 호화 유람선도 지난달 30일 소말리아 해적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뉴질랜드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만2771급 노티카호는 '해적의 해로'로 알려진 아라비아 해에 아덴만을 지날 때 2척의 소형 선박이 다가와 회피기동을 시작했으나 이를 선박 1척에서 8발의 사격을 가해왔다. 다행히 유람선에 이 선박에서 온 총격에 맞지는 않았다고 언론은 전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노티카호 운영회사 '오세아니아 크루즈'는 성명을 통해 유람선에 태고 있던 사람들을 중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제 관계당국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해적들은 유람선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까지 접근했으나 유람선이 속력을 내자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태국 현재, 집권당 해체 명령

내각 총사퇴·당 간부들 정치활동 금지

中 멜라민 피해 아동 29만명

첫 공식 집계…5만여명 입원, 6명 사망 추정

멜라민 분유를 먹고 신장결석에 걸린 피해 아동이 중국 전역에서 29만명에 달한다고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중국 당국이 지난 9월21일 멜라민이 섞인 유제품의 피해 아동들이 총 5만3천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이후 전국적인 공식 집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衛生부는 1일 웹사이트에 올린 보고서에서 멜라민 파문이 발생한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2천238만4천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한 결과 29만명에게서 신장계통에 걸

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병원에 입원한 환자수는 5만1천900명이었으며 이미 5만1천39명이 퇴원했고 현재까지 861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환자는 154명에 달했다.

위생부는 전문가의 정밀 분석 결과 간쑤성에서 2명을 비롯해 장시, 저장, 구이저우, 산시성에서 각 1명씩 총 6명의 어린이가 문제의 분유를 먹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생부는 그러나 사망 가능성이 있는 6명이란 숫자에 그동안 알려진 사

망한 아동 4명이 포함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10월 국경절 직후 3천100여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혀 당시 인구비례를 토대로 전국에 적용할 경우 24만명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관측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도 앞서 10월 초에 멜라민 분유로 인한 환자수가 9만명을 이미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짜루시를 비롯해 대형업체가 만든 분유와 유제품에서 공업용 유해물질인 멜라민이 대량 검출돼 심각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수출이 금지되는 등 전 세계적인 파문이 일었다.

/연합뉴스

2009년
편입학
성 공

그동안 편입합격생 12만 천여명을 배출한 "김영선생대학편입"

대학편입

최종마무리반 모집
개강▶12월 1일 첫진도

www.kimyoung.co.kr

김영
대학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검·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 무 사 권 숙 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주)옥션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친절상담
법원 경매
062)222-8446
H.010-3866-8446

▶교민사업

소재지	대/전	감정가	최저가	비고
광주	48/233	8억3500만	5억8500만	부실증정부지/부동산
오거동	50/52	1억6100만	1억1300	경기고지부지/부동산
금호동	104/234	7억3100만	4억8000만	부동산/부동산
문화동	146/409	12억7000만	7억1000만	부동산/부동산
봉동	137/223	6억1000만	3억5000만	부동산/부동산
일산동	362/993	41억4000만	26억5000만	부동산/부동산
우신동	188/193	10억8000만	5억8000만	부동산/부동산
부문동	40/34	4억3000만	2억4000만	부동산/부동산

▶근본상가

소재지	전/월	감정가	최저가	비고
제2동	32.5	4억3000만	2억7500만	금계광장부지/부동산
화순동	36	1억5000만	1억5000만	부동산/부동산
풀동	23	9000만	6300만	부동산/부동산
봉동	15.8	7000만	5136만	동부센트럴상가/부동산
대동	11	6200만	2780만	부동산/부동산
제2동	46.8	3억5000만	1억820만	중화미술관/부동산
제3동	119.7	11억2000만	4억	현대백화점/부동산

▶근린주택

소재지	대/전	감정가	최저가	비고
증평동	40.5/43.7	1억180만	6830만	부동산/부동산
화정동	203/180	62억7860만	49억7500만	부동산/부동산
화정동	341/661	16억8000만	7억5610만	부동산/부동산
남성동	50/161	3억1300만	2억1950만	마케팅부지/부동산
문화동	47/57	1억100만	1억700만	부동산/부동산

▶주택시설(모듈)/월정

소재지	대/전	감정가	최저가	비고
신기동	60/114	3억300만	2억200만	137구구/3층건물
학동	110/259	8억820만	2억933만	5층모텔
화정동	726/373	7억6500만	3억400만	4층모텔
구수동	832/626	15억100만	5억220만	4층모텔